

계시록 3장 세 가지 메시지

계시록 3:1-6

사데 교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3:1-3)

개신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다. 개신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극적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도 믿지 않는다. 천국이나 지옥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믿음을 부인하고 있다. 많은 개신교 교회가 단순한 사교 클럽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다. 주님께서는 그 남은 것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완전한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신교는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받아들였던 이방 우상 종교의 관습들을 계속 따르고 있다. 여전히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으며, 이방 우상 종교의 상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방 종교의 축제일을 지킨다. 그들의 개혁은 불완전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의 교회를 향해 '네 행위의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느냐? 그것을 굳게 하고 회개하라.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느 시간에 올지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셨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놀라움으로 맞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셨다(마24:42, 44).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올 수 없으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5:8)고 했다.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3:4-5)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이다. 내가 이 책에서 제하여 버리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제해될 것이라고 하셨다(계22:19). 나는 내 이름이 흐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어도 나는 알 수도 없고,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3:6)

계시록 3:7-13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은 믿음의 교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기를 바라신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라(3:7-8)

우리는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갖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적은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가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3:9)

그 나라가 임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3:10)

본문은 신실한 믿음의 교회는 대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눅21:36)고 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3:11-13)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는 왕국 시대의 한 부분이 될 것이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계시록 3:14-17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에 타락한 교회이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3:14)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되고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1:16-17).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3).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실제로 창조의 능력이시며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3:15-16)

그들이 미지근한 이유는 다음 절에 나온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3:17)

유물주의를 의지한 그들은 미지근한 상태에 이르렀다.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6:24). 두 가지를 섞으면 미지근한 상태가 된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는 말씀은 참으로 대조적인 관점이다.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가 자신을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 사람의 표준에 맞추어서 판단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셨다(눅18:9-14). 우리는 너무도 자주 사람의 표준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기준은 우리가 판단을 받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자신을 주님께 맞추어 보고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까를 생각해 보라. 만일 “글쎄요, 저는 척 스미스 목사님보다 낫네요”라고 말한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주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고 말씀하셨다. 자기가 가진 의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그 의뿐이다. 믿음으로 얻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계시록 3:18-22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셨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3:18-19)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히12:5-6).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아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만을 꾸짖으신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면 징계도 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미지근함을 치료하는 첫번째 방법이다. 미지근함을 치료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열심을 내는 것이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회개하는 것이다.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3:20)

주님은 우리와 깊고 가장 친밀한 사귄, 즉 서로간에 더불어 먹고 나누는 교제를 갖기 위해 친히 초청하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3:21)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3:22)

